

홍익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서울캠퍼스)	3
오전 · 문제 1	3
오전 · 문제 2	8
오후 · 문제 1	12
오후 · 문제 2	17
2025학년도 인문계열 (서울캠퍼스)	21
오전 · 문제 1	21
오전 · 문제 2	27
오후 · 문제 1	31
오후 · 문제 2	36
2024학년도 인문계열 (서울캠퍼스)	41
오전 · 문제 1	41
오전 · 문제 2	45
오후 · 문제 1	49
오후 · 문제 2	54

2026학년도 인문계열 (서울캠퍼스)

오전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라)는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양상들을 보여준다. 각 제시문에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800±100자)

[가]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한다. 이러한 성향을 강압적 힘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무질서의 상태를 피하는 방법은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어 자신의 힘을 한 사람의 통치자 또는 하나의 합의체인 국가에 양도한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군중을 국가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¹⁾의 탄생이다.

모든 개인으로부터 이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리바이어던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공포를 통해 각 개인의 의지들을 통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많은 권력을 갖는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해외의 적들에 대해서는 공동 방어를 한다.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이러한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통치자는 교육을 통해 국민이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에 선동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 리바이어던(Leviathan): 『구약 성서』에 나오는 수중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T. Hobbes, 1588~1679)가 국가를 이것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나]

1988년 문교부가 고시한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문화적 위선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표준어의 매력과 구심력을 한층 키웠다. 그러나 표준어가 휘두르는 획일화의 폭력에 맞서는 저항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방 출신의 서울 거주자들 가운데 자신의 방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언어에 동화하는 것을 제 정책의 굴욕적 포기여 여기는 방어 본능 때문일 것이다. 문학의 세계에서조차 표준어에 밀려 잊혀 가는 방언들을 기록하고 되살려 놓으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언어가 본디 소통의 도구이므로 정보통신 분야의 끊임없는 표준화 시도가 당연하듯, 표준어의 제정 자체는 불가피하다. 수많은 방언들의 대등한 경쟁은 그 원심력으로 한 언어를 이완시켜 마침내 소통 불능 상태로 분해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표준어가 한 언어 안에서 행사하는 패권은 그 언어의 표현 가능성을 제약해 결국에는 단조롭고 가난한 국어만을 남게 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지방 언어(방언)를 존중하고 그 사멸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여기에는 방언을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다원주의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반영되어 있다. 표준어와 방언은 제 나름의 사용 영역과 기능이 있기에, 공존함으로써 한 나라의 언어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인터랙티브 예술 즉, 쌍방향 예술은 1990년대 초반에 컴퓨터 기반의 상호작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예술 세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기초한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현대 예술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인터랙티브 예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관람객의 참여가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라, 전시된 특정 물체를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그 앞에서 행위를 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 작품은 권력을 지닌 작가의 단일한 의도에 종속되기보다는

다양한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예술에서는 의미의 생산과 수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이다. 작가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발견하고, 관람객은 작품 완성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작가와 나누어 갖게 된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관람객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형식의 창출을 돕는다. 이는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라]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는 ‘중간 관리자 없이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행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자. 은행은 모든 사람의 거래 기록을 혼자서 보관하고 관리하며, 거래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신뢰는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²⁾들이 함께 정보를 나누어 보관하고 서로의 기록을 검증한다. 마치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거래 장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장부에는 모든 사람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친구가 자기 장부의 내용을 몰래 고치려고 해도, 다른 친구들이 가진 수많은 장부의 내용과 달라서 금방 탄로가 난다. 또한 중앙 서버가 해킹되거나 특정 관리자의 실수로 데이터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기록들이 이를 보완하여 전체 시스템은 완전하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은 신뢰의 초점을 중앙기관에서 개인과 집단의 합의로 이동시킨다. 과거에는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이 거래를 보장해 주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거래의 진위가 판단되고 신뢰가 형성된다. 즉, 특정한 중앙기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없이도 기술적인 합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질서이다.

2) 노드(node):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

■ 예시 답안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기도, 여러 곳에 분산되기도 한다. 제시문 (가)~(라)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가)는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힘이 ‘리바이어던’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집중과 분산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이며 분산은 막아야 할 부정적인 상태이다. (나)는 표준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방언을 보존하는 노력도 강조한다. 표준어가 언어를 획일화하는 구심력은 집중에 해당하고, 방언들이 표준어에 저항하는 원심력은 분산에 해당한다. 여기서 집중과 분산은 갈등하기도 하지만 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가 주목한 인터랙티브 예술의 특징은 작품이 작가의 단일한 의도에만 종속되지 않고 여러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변화되고 완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은, 집중보다 분산을 더 부각시키고 분산이 집중과는 구별되는 가치를 지님을 드러낸다. (라)는 중앙기관의 관리 없이도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을 소개한다. 이 경우에 신뢰가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분산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은 집중을 대체하는 더 나은 선택이 된다.

집중을 강조했던 과거에 비해 현대는 분산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가)는 분산을 무질서로 보았지만 (라)는 집중으로 유지되는 기존의 질서가 분산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기술의 변화를 제시했다. 또한 (나)는 집중에 대한 저항으로서, (다)는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집중을 보완할 수 있는 분산의 기능과 가치에 주목했다. 나아가 (다)의 ‘민주화’, (라)의 ‘탈중앙화’는 분산을 집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

■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 문제 1은 사범대학,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6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 문제의 요구를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로 분량을 채우거나, 합당한 근거의 뒷받침 없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견해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에 포함된 구절을 따옴표 등의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 문제가 답안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쓸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안은 서론과 결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이 요구하는 사항 전부를 본론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항의 요구사항 중 일부로 서론 또는 결론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제시문 (가)~(라)에 나타나는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양상을 각각 분석”하는 것에 총 60% (제시문 (가)~(라)를 분석하는 것에 각각 15%), 두 번째 요구사항인 “이를 종합하여 분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 2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소수와 분산되는 다수를 구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릴 수 있어야 한다. - 집중과 분산이 관계 맺는 양상은 각 제시문에 사용된 핵심어를 활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핵심어를 찾아서 그대로 기술할 수도 있고, 핵심어를 토대로 추론하여 기술할 수도 있다. - 각 제시문은 다루고 있는 집중과 분산의 양상이 모두 다르고, 집중 중심에서 분산 중심으로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의 순서대로 각각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량은 각 제시문에 대해 150자 정도가 적당하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60점, 각 15점) ※ 제시문에 나온 구절은 큰따옴표(“”)로 표시하였음.	60

문항	채점 기준			배점														
		<table><tr><th></th><th>집중되는 곳 ↔ 분산되는 곳</th><th>집중과 분산의 관계</th></tr><tr><td>제시문 (가)</td><td>통치자(국가), 리바이어던 ↔ 군중(국민)</td><td>“무질서를 피하기 위해,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 분산을 막아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 (※ 분산과 집중은 양립 불가능한 배타적인 관계)</td></tr><tr><td>제시문 (나)</td><td>표준어 ↔ 방언 (들)</td><td>“방언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표준어의 폭력에 맞서는 방언의 저항” ⇒ 집중과 분산은 폭력과 저항 관계 (※ 갈등, 경쟁 관계) “소통을 위해 표준어의 제정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언어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들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 ⇒ 분산은 집중과 구별되는 기능을 갖는다. 집중과 분산이 “공존”해야 한다. (※ 집중이 우위에 있는 분산의 존중)</td></tr><tr><td>제시문 (다)</td><td>작가 ↔ 관람객 (들)</td><td>“작품은 권력을 지닌 작가의 단일한 의도에 종속되기보다는,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작품 완성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작가와 관람객이 나누어 갖는다.”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 분산은 집중과 구별되는,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분산이 집중을 보완한다. (※ 집중이 우위에 있지 않고, 분산에 더 많은 의미 부여)</td></tr><tr><td>제시문 (라)</td><td>중앙기관, 은행 ↔ 노드(들), 네트워크 참여자들</td><td>“집중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중의 방식이 없어도, 신뢰, 질서, 시스템이 유지된다.” ⇒ 분산이 집중보다 더 낫다. 분산이 집중을 대체할 수 있다. (※ 분산이 집중보다 우위)</td></tr></table>		집중되는 곳 ↔ 분산되는 곳	집중과 분산의 관계	제시문 (가)	통치자(국가), 리바이어던 ↔ 군중(국민)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 분산을 막아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 (※ 분산과 집중은 양립 불가능한 배타적인 관계)	제시문 (나)	표준어 ↔ 방언 (들)	“방언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표준어의 폭력에 맞서는 방언의 저항” ⇒ 집중과 분산은 폭력과 저항 관계 (※ 갈등, 경쟁 관계) “소통을 위해 표준어의 제정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언어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들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 ⇒ 분산은 집중과 구별되는 기능을 갖는다. 집중과 분산이 “공존”해야 한다. (※ 집중이 우위에 있는 분산의 존중)	제시문 (다)	작가 ↔ 관람객 (들)	“작품은 권력을 지닌 작가의 단일한 의도에 종속되기보다는,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작품 완성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작가와 관람객이 나누어 갖는다.”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 분산은 집중과 구별되는,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분산이 집중을 보완한다. (※ 집중이 우위에 있지 않고, 분산에 더 많은 의미 부여)	제시문 (라)	중앙기관, 은행 ↔ 노드(들), 네트워크 참여자들	“집중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중의 방식이 없어도, 신뢰, 질서, 시스템이 유지된다.” ⇒ 분산이 집중보다 더 낫다. 분산이 집중을 대체할 수 있다. (※ 분산이 집중보다 우위)	
	집중되는 곳 ↔ 분산되는 곳	집중과 분산의 관계																
제시문 (가)	통치자(국가), 리바이어던 ↔ 군중(국민)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 분산을 막아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 (※ 분산과 집중은 양립 불가능한 배타적인 관계)																
제시문 (나)	표준어 ↔ 방언 (들)	“방언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표준어의 폭력에 맞서는 방언의 저항” ⇒ 집중과 분산은 폭력과 저항 관계 (※ 갈등, 경쟁 관계) “소통을 위해 표준어의 제정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언어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들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 ⇒ 분산은 집중과 구별되는 기능을 갖는다. 집중과 분산이 “공존”해야 한다. (※ 집중이 우위에 있는 분산의 존중)																
제시문 (다)	작가 ↔ 관람객 (들)	“작품은 권력을 지닌 작가의 단일한 의도에 종속되기보다는,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작품 완성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작가와 관람객이 나누어 갖는다.” “예술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 분산은 집중과 구별되는,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분산이 집중을 보완한다. (※ 집중이 우위에 있지 않고, 분산에 더 많은 의미 부여)																
제시문 (라)	중앙기관, 은행 ↔ 노드(들), 네트워크 참여자들	“집중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중의 방식이 없어도, 신뢰, 질서, 시스템이 유지된다.” ⇒ 분산이 집중보다 더 낫다. 분산이 집중을 대체할 수 있다. (※ 분산이 집중보다 우위)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① 각 제시문에 나타나는 ‘분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결론으로 삼을 수 있다. 단,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술해야 하므로,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각 제시문 사이에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제시문 (가)는 분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고, 상대적으로 제시문 (나)~(라)는 분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나타난다. 또한 과거(17세기)에는 분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20세기 이후 현대에는 분산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확장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안을 평가할 수 있다. <table><tr><th>평가 기준 예시</th><th>평가</th></tr><tr><td>긍정적, 부정적 관점의 구별을 넘어서서 ‘무질서와 질서’, ‘저항과 대체’, ‘보존과 창출’ 등 차이를 보다 구체적, 입체적으로 설명한 경우</td><td>상</td></tr><tr><td>긍정적, 부정적 관점 사이의 정도 차이와 함께 변화의 방향 또는 시대의 변화를 설명한 경우</td><td>중</td></tr><tr><td>긍정적, 부정적 관점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경우</td><td>하</td></tr></table> ③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20점)				평가 기준 예시	평가	긍정적, 부정적 관점의 구별을 넘어서서 ‘무질서와 질서’, ‘저항과 대체’, ‘보존과 창출’ 등 차이를 보다 구체적, 입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상	긍정적, 부정적 관점 사이의 정도 차이와 함께 변화의 방향 또는 시대의 변화를 설명한 경우	중	긍정적, 부정적 관점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경우	하	20						
평가 기준 예시	평가																	
긍정적, 부정적 관점의 구별을 넘어서서 ‘무질서와 질서’, ‘저항과 대체’, ‘보존과 창출’ 등 차이를 보다 구체적, 입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상																	
긍정적, 부정적 관점 사이의 정도 차이와 함께 변화의 방향 또는 시대의 변화를 설명한 경우	중																	
긍정적, 부정적 관점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경우	하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분산에 대한 관점/가치 평가의 차이		
	제시문 (가)	분산은 나쁘다.	• 분산은 “무질서”를 유발하므로, 막아야 한다. (분산 억제 지향)	
	제시문 (나)		• 분산은 패권에 대한 “저항”이다. • 분산은 “존중과 보존”의 대상이다. • 집중과 분산이 “공존”해야 한다. (“다원주의” 지향)	
	제시문 (다)	↓	• 분산을 통해 “변화”와 “완성”이 이루어진다. • 분산이 “새로움을 창출”한다. • 분산이 “민주화”를 촉진한다. (“민주화” 지향)	
	제시문 (라)	분산은 좋다.	• 분산은 “새로운 질서”다. • 집중의 방식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 • 집중의 방식보다 분산의 방식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탈중앙화” 지향)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이 문제의 경우는 첫 번째 요구사항을 본론으로, 두 번째 요구사항을 결론으로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서론이 없더라도 문제의 요구사항에 충실하게 답하였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총 배점 10점)				10

오전 · 문제 2

[문제 2] 제시문 (마)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라 제시문 (바)와 (사)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시문 (아)의 쟁점에 관해 논하시오. (800±100자)

[마]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추세로 전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발명과 혁신이 판판의 결과를 불러온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 농업 기술 발달은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0퍼센트에 달하던 농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기술 낙관주의가 옳은 측면도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과학지식의 발달 과정을 혁명적으로 바꾼 점이 그러하다.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지식이 이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아가 수십억 인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쪽으로 쓰이게 하려면 과학기술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맹목적인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냐는 정치적·경제적 선택에 달려있다. 순전히 기술 공학적 의미에서 무엇이 합리적인지가 꼭 결정적인 요소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서로 다른 선택지는 서로 다른 집단에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선택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다.

[바]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대에는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다. 노갈레스는 원래 멕시코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는데, 1853년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노갈레스의 일부를 매입한 후, 1994년에 거대한 장벽을 세움으로써 한쪽은 멕시코 소노라주 노갈레스, 다른 한쪽은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로 나누어지게 된다. 국경선을 맞댄 쌍둥이 도시지만 두 도시의 운명은 판이하다. 미국 노갈레스 주민들은 멕시코 노갈레스 주민들보다 평균 세 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으며, 멕시코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의료혜택, 복지 등의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각 국가의 제도이다. 멕시코에서는 힘 있는 정치 세력과 독점 기업 간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방치하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막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착취적 제도³⁾는 탈세,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를 성행하게 하며, 정당한 근로의 기회와 대가를 보장하지 않아 사람들 간 극심한 빈부 격차를 초래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 기업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합당한 인센티브(경제적 유인)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⁴⁾를 취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과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3) 착취적 제도: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는 제도

4) 포용적 제도: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계가 공평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사]

시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감시와 비판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소규모의 인터넷 카페로 시작하여 회원 4만 4천여 명의 시민 단체로 급성장한 ‘미대축’(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단체의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회 운동가가 아니라 평범하게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이다. 이들은 환경부와의 면담, 집회와 토론회,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발의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아]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한쪽 끝에서는 인공지능이 온갖 난제를 풀고 인류를 구원하는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분석 프로그램은 금융 분석가가 40시간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처리하고 있고, 2045년쯤에 이르러서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스스로 자신을 개조해 지적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존재가 불치병 치료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 인류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반대쪽에서는 심각하게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디스토피아⁵⁾의 가능성을 경고한다. 기계가 육체노동자를 대체했듯이 인공지능이 지식노동자를 대체할 것을 우려한다. 세계 경제 포럼은 인공지능과 로봇 과학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데 반하여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5)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이상향)의 반대 개념

■ 예시 답안

제시문 (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기 위해, 맹목적 기술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향에 관한 정치적·경제적 선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그 선택에 관해서 제시문 (바)와 (사)가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바)의 ‘노갈레스’ 예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도의 선택이 중요하고, 특히 포용적 제도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멕시코에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진 데 반하여, 미국은 인센티브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결과 기업가 정신이 촉진되고 과학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다. 여기서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포용적 제도의 선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시문 (사)의 ‘미대축’ 예시처럼, 시민사회는 포용적 제도가 선택되고, 나아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줄어들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발달의 성과가 특정 기업과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제시문 (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불치병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유토피아적 입장과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디스토피아적 입장의 대립을 설명한다. 하지만 제시문 (마)의 관점에 따르면 맹목적 낙관주의와 극단적 비관주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국가는 포용적 제도를 선택해서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모두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하고, 시민사회는 국가가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 학생들이 제시문 (마)의 내용을 사례 (바), (사)와 연관하여 분석하는 부분 50%,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아)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 40%를,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

문항	채점 기준				배점
	구분		평가 기준	배점	50
	과학기술 발전 방향 제안	제시문 (마) 의 이해	- 새로운 과학기술이 광범위한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 - 과학기술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맹목적인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공동체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0	
		제시문 (바): 국가 제도적 방안	- 멕시코의 착취적 제도와 미국의 포용적 제도의 비교 - 국가 제도의 설계가 근로자의 처우 및 경제 성장의 차이를 만들었음을 이해 - 국가 제도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번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안임을 인식	20	
		제시문 (사): 시민 참여적 방안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 시민사회가 권력의 남용을 감시, 견제하여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이해	20	
	구분		평가 기준	배점	50
	제시문 (아)의 쟁 점에 대한 방안 제시	과학기술 발 전의 양면성	- 인공지능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서술 - 과학기술로 인한 번영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감점	15	
		공동체적 선택의 필요성	- 이분법적 사고: 기술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주장만 하는 경우는 낮은 점수 부여 - 국가 제도적 방안과 시민 참여적 방안 모두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번영에 필요한 과정임을 서술	25	
	글 전체	논리적 완성 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오후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는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 (라)에 나타난 기록을 분석하시오. 단,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시오.(800±100자)

[가]

기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달력 한 귀퉁이에 적은 것도 기록이고 노트를 빼곡하게 채우는 것도 기록이라 부른다. 하지만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로써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든 기록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이 그 생산·관리 및 이용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진본성(眞本性 authenticity)이다. 진본성은 어떤 기록이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 『태종실록』이 조선 실록청에서 편찬한 것이 맞는지, ‘저’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진짜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로 무결성(無缺性 integrity)을 들 수 있다. 무결성은 기록이 훼손, 손실, 변조 등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만 기록이 생산된 후 그 물리적 요소가 변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종이 기록의 잉크가 흐려졌거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도 무결성이 손상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면이 없어졌거나 없어진 면이 공증 서명 부분이라면, 무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해당한다.

한편 데이터와 같은 전자 기록의 무결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록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았는지로 판단한다.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형은 불가피하다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 기록은 그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은 완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과 형태의 요건이 동일하다면 디지털 정보를 구성하는 비트스트림(bit stream)* 등의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기록의 무결성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가치 있는 기록의 구성 요소로 이용가능성(usability)도 있다. 이는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록을 가치 있게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 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술환경이 변화해도 이를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비트스트림(bit stream): 데이터의 단위인 비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수열. 이를 가져와 기억 장치의 매체에 저장하면 컴퓨터 파일이 만들어짐.

[나]

“나랏말싸미 中憵國圉에 달아 文文字憵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썻”로 시작되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御製序文)’은, 세종이 한글을 만든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어졌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그런데 그 창제 원리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기록으로만 존재하였고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 이 책이 발견된 것은 놀랍게도 한글 창제 후 500여 년이 흐른 뒤인 1940년대에 와서의 일이다. 이 책은 1책 33장의 목판본으로 세종이 직접 쓴 ‘어제서문’과 ‘예의(例義)* 4장, 집현전 학사들이 쓴 ‘해례(解例)**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솔 최현배는 “진정한 원본의 출현을 고대함이 간절하더니, 천만뜻밖에 영남에서 이런 진본이 발견되었음은 실로 하늘이 이 글의 운을 돌보시고 복 주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 반갑도다. 훈민정음 원본의 나타남이여!”라고 감격하기도 하였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2008년 7월 간송미술관 소장 원간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북 상주시에서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보도 이후 원본 확인을 위해 소장자를 찾아간 전문가에 따르면, 그가 실물을 보여준 것은 책을 해체하여 분리한 낱장 1장뿐이었다고 한다. 다만 방송국에서 촬영했던 동영상 자료로 책의 일부인 13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기에 책의 상태가 매우 불완전하다고 하였다. 소장자는 이 책이 총 33장 가운데 4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제3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중 13장에 불과하고, 책의 중요한 앞부분인 ‘어제서문’과 ‘예의’ 4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책이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책인지를 확인하려면 두 책의 정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소장자의 진술만으로 책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 예의(例義): 세종이 훈민정음의 음가와 사용 방법을 설명한 부분.

** 해례(解例):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를 풀이한 부분.

[다]

『승정원일기』에 사도 세자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조선왕조실록』 1776년(영조 52년) 2월 4일 기사(記事)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가서 명령하기를,

“이번에 내가 명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하고 나이 어린 세손(世孫)*을 위한 것이나, 다소 부족한 바가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실록』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없겠지만, 『승정원일기』로 말하자면 미천한 자들도 다 보는 것이니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더럽힐 수 있을 것이다. 저승에서 사도(思悼)**가 자신과 관계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승정원일기』를 통해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눈물을 흘릴 것이니, 이 어찌 훌륭한 유산을 후세에 여유롭게 물려주는 뜻에 부합하겠는가? 『실록』에 사도의 기록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승정원일기』에 그것이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승정원일기』 중 사도의 죽음 관련 기록을 찾아서, 승지(承旨) 한 명이 주서(注書) 한 명과 함께 『실록』 편찬 때 하는 것처럼 창 의문(彰義門) 밖 차일암(遮日巖)의 시냇가에 가져가 세초(洗草)***해버리도록 하라. 사도를 죽인 것은 그에게도 차마 못할 일이었으니, 이번 명령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 세손(世孫): 영조 말년 당시 영조의 손자로 왕위계승권자였던 정조(正祖).

** 사도(思悼): 정조의 부친으로, 아버지인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 세자.

*** 세초(洗草): 『조선왕조실록』 편찬 후 그 과정에서 생겼던 불필요해진 각종 문서를 물에 씻어 글씨를 지우고 그 종이를 재 활용하는 행위.

[라]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손상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 시스템이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먼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데이터는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됩니다. 또한 센터 자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에 데이터 분산 저장장이 이뤄집니다. 전체 시스템 중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되며, 대다수 시스템의 데이터는 매월 말 오프라인 백업을 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정보 시스템 데이터는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 장비를 재구동해 데이터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센터 내 다른 공간에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구한 뒤, 그렇게 해도 복구되지 않는 데이터는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 내 데이터를 추가 활용하여 복구됩니다. 이 경우, 대전 본원의 기존 및 백업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부 손상되었다고 해도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재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은 매일 온라인 백업이 이뤄져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손상된 정보 시스템 데이터가 원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 다룬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인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나), (다), (라)에 나오는 기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나)의 간송본은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를 썼고,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썼다는 점, 최현배가 진본임을 인정했다는 점 등으로 진본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책 33장의 목판본으로 발견되어 전해진다는 내용에서 무결성 역시 확인된다. 상주본의 경우 소실된 부분이 있으므로 무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현재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제시문 (다)는 『실록』과 『승정원일기』라는 두 기록이 등장한다. 『승정원일기』는 사도 세자의 죽음 관련 불미스러운 내용 부분이 세초를 통해 삭제되었으므로 무결성을 갖추지 못한다. 반면 『실록』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의 삭제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실록』은 그 요소를 갖추지 못한 반면, 미천한 자들도 다 보는 『승정원일기』는 해당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의 화재로 손상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의 경우, 화재 결과 손상된 현재의 데이터는 기록의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용가능성도 갖추지 못한다. 그러나 전자 기록은 그 특성상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데이터를 매일 백업했다는 점, 그리고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복구될 경우 무결성은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기술로 미루어 이용가능성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 학생들은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가치 있는 기록의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시문 (나)~(라)의 기록에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시문 (나)~(라)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기록을 찾아내고, 그 기록에 제시문 (가)의 요소가 있는지를 판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에서 이것이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중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를 각각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시문들의 기록 가운데 해당 요소가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 가능한 요소만 찾아 글을 구성하는 취사선택 능력도 요구된다.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해당 제시문 (나), (다), (라)의 기록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각각 30%씩,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제시문 (나)에서 간송본은,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例義)’를 썼고,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解例)’를 썼으며, 외술 최현배의 언급까지 있으므로 진본성의 요소를 갖추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1책 33장의 목판본이 발견되어 남아있다는 기술에서 무결성도 갖추었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상주본은 전체 33장 중 29장이 남아 있다는 점,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13장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통해 무결성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록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배점 30%)	30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진본성	(2) 무결성	(3) 이용가능성	
	간송본	유무	있음	있음		
		근거	① 세종이 어제서문과 예의를 씀 ②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를 씀 ③ 최현배의 평가	1책 33장의 목판본이 발견되어 남아있음		
	상주본	유무		없음	없음	
근거			① 전체 33장 중 29장이 남아있음 ② 외부에 공개한 자료가 13장에 불과함	현재 기록이 비공개 상태이므로 이용 불가		
(※표에서 공란 표시된 부분은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항목임)						
3. 제시문 (다)에서는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승정원일기』가 세초를 통하여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무결성이 손상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실록』은 완성 후 아무나 접근할 수 없기에 이런 예외적인 세초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실록』은 해당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미천한 자들도 볼 수 있는 『승정원일기』는 그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배점 30%)						
			(1) 진본성	(2) 무결성	(3) 이용가능성	30
	실록	유무		있음	없음	
		근거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 세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아무나 접근할 수 없음	
	승정원일기	유무		없음	있음	
		근거		사도 세자 관련 기록이 세초되어 삭제됨	미천한 자들도 볼 수 있음	
	4. 제시문 (라)에서는 우선 데이터가 전자 기록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의 상태(이하, 상태 A)와 복구 이후의 상태(이하, 상태 B)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상태 A는 화재로 인해 무결성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용가능성의 요소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상태 B를 말하자면, 제시문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자 기록은 그 특성상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데이터를 매일 백업했다는 점, 그리고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복구될 경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기술에서 이 데이터가 이용가능성의 요소 역시 갖추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상태 A가 현재의 상황이고 상태 B는 가정이므로 채점자가 판단하여 상태 A에 대한 서술에 더 높은 배점을 줄 수 있다.(배점 30%)					
			(1) 진본성	(2) 무결성	(3) 이용가능성	30
	손상된 현재 상태 (상태 A)	유무		없음	없음	
		근거		화재로 데이터가 손상됨	화재로 데이터가 손상됨	
	복구되었을 경우 상태 (상태 B)	유무		있음	있음	
근거			① 전자 기록은 물리적 속성이 변경되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됨 ② 매일 백업이 이루어졌음 ③ 삼중의 방식으로 복구됨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됨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는 제시문 (나)~(라)에서 각각 4개씩 확인되는데, 채점자가 답안 작성 내용의 완성도를 판단하여 1개당 7~8점을 배점할 수 있다. 제시문의 정보만으로 해당 요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기술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6.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가치 있는 기록의 요소를 찾을 때 제시문 (나)~(라)의 분석이 어느 한 글에 치우치지 않고 분량상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근거 없이 세 가지 요소의 유무만 기술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배점 10%)	10

오후 · 문제 2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는 각각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마)와 (바)를 연관 지어, 제시문 (사)와 (아)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시오. 단, (아)의 경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갖는 한계 또한 설명하시오.(800±100자)

[마]

언론은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 또는 이 활동을 행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 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및 각종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시민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언론은 국가 권력이나 기업, 각종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적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 시민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 활동에 대해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론 형성이 어려워지고,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언론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 언론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빨라지면서 사회적·국가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바]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 따라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참정권이라 불리는 이런 기본권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시민들은 투표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보통선거를 통해 온건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한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 민주제’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민주 정치 과정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다수 유권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정당이나 인물, 정책에 대해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또한 민주 시민은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행복추구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하에서 민주 시민은 국가에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권의 보호,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 깨끗한 환경,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공 등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사]

최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ESG*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환경 및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상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에 가치를 둔다. 즉, 기업의 단기적 이윤 증가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 기업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ESG를 실천하는 기업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보장하여 근로자 삶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자연적 환경의 보존에 힘쓰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지역 신문사의 언론 활동이 기업 ESG 활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에서 총 33개의 지역 신문사가 문을 닫았는데 지역 소식을 다루던 이들 신문사의 폐업이 기업 ESG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역 신문사 폐업이 있었던 지역의 공장들(A그룹), 지역 신문사 폐업이 없었던 지역의 공장들(B그룹), 이 두 그룹의 공장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과 ESG 관련 규정 위반 사례 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폐업 후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탄소배출량은 약 18.3%, ESG 관련, 즉, 산업현장안전,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의 규정 위반 사례 건수는 약 15.2% 높게 나타났다.

* ESG: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

[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의 방송사 폭스 뉴스(Fox News)는 투표 기계 및 선거 소프트웨어 회사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s)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조작을 통해 민주당 후보의 득표 수를 늘렸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2021년 3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폭스 뉴스를 상대로 한화 약 1조 8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에 폭스 뉴스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송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고, 결국 폭스 뉴스는 2023년 3월,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한화 약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미국 언론사 대상 명예훼손 소송 중 규모가 매우 큰 사례로 기록된다.

■ 예시 답안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를 연관 지어 제시문 (사)와 (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사)는 지역 신문사의 폐업이 기업의 ESG 활동에 영향을 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에서는 언론이 정보 생산 기능과 사회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 또한 늘어나 결국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즉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민주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됨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제시문 (아)에서는 폭스 뉴스라는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언론이 정확하면서도 진실된 정보의 전달이라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유권자인 시민이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게 되어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리하여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되고,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 민주제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이를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일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허위 정보에 대해 국가가 규제를 가하게 될 경우, 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결국 사회 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제 2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이 (마)와 (바)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론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과 대의 민주제를 연관 지어, 제시문 (사)의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에 35%, 제시문 (아)의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에 55%,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한다.												
	<table> <tr> <th>구분</th><th colspan="2">평가 기준 (배점)</th><th>총배점</th></tr> <tr> <td rowspan="2">제시문 (사) 분석</td><td>분석 기준 파악</td><td> - 언론의 정보 제공 기능 (2) -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 (3) -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 (5) </td><td>10</td></tr> <tr> <td>연결 과정 설명</td><td> - 언론 정보 기능 및 비판·감시 기능 상실함 (5) -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함 (5) - 공동체 삶의 질 저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받지 못함 (5) -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설명 속에 그 의미를 잘 살린 경우 동일한 점수 부여. </td><td>25</td></tr> </table>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총배점	제시문 (사) 분석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보 제공 기능 (2) -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 (3) -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 (5)	10	연결 과정 설명	- 언론 정보 기능 및 비판·감시 기능 상실함 (5) -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함 (5) - 공동체 삶의 질 저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받지 못함 (5) -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설명 속에 그 의미를 잘 살린 경우 동일한 점수 부여.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총배점										
제시문 (사) 분석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보 제공 기능 (2) -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 (3) -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 (5)	10										
	연결 과정 설명	- 언론 정보 기능 및 비판·감시 기능 상실함 (5) - 기업의 ESG 규정 위반 사례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함 (5) - 공동체 삶의 질 저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받지 못함 (5) -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 (5) ※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설명 속에 그 의미를 잘 살린 경우 동일한 점수 부여.	25										

하위 문항	채점 기준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총배점
	제시문 (아) 분석	분석 기준 파악	- 언론의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 제공 기능 (7)	15
			-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 (3)	
			- 참정권 및 대의 민주제 (5)	
	연결 과정 설명		- 올바르게 못한 정보 제공 (4)	20
			- 유권자인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4)	
			- 사회적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의사결정’하지 못함 (4)	
			-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 (4)	
			- ‘참정권’ 침해와 ‘대의 민주제’ 시스템 훼손 (4)	
	해결책 제 시		-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언급 (5) ※ 단, ‘허위 정보’ 대신 ‘가짜 정보’ 또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써도 감점 없음.	5
	해결책의 한계 설명		- ‘언론의 자유’ 개념으로 민주주의 훼손 과정 설명 (15) ※ ‘허위 정보 제재 → 정보 제공과 확산에 대한 규제 →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의 교환 제한 → ‘언론의 자유’ 침해 →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점수는 차등 부여 가능.	15
	글 전체	논리적 완 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5)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5)	10

2025학년도 인문계열 (서울캠퍼스)

오전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의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나), (다), (라)의 필자가 서술하는 현상이 어떤 관점으로 설명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되, (다), (라)는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단, (다)는 ‘정상 가족’ 범주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800±100자)

[가]

인간은 세계의 온갖 대상들을 특정 범주(category)에 속한 것으로 인식한다. 어떤 대상을 범주화하려는 이러한 성향은 진화의 산물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흔히 마주치는 동물들에 대해 ‘천적’, ‘먹이’ 등으로 범주화하는 능력은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세계를 범주화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데 비해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선 몇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 고전적인 서양철학의 전통에서는, 범주란 엄밀하게 정의되고 상호 구분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전적 관점에서는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하나의 범주는 그 범주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속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둘째, 본질적 자질 집합을 모두 소유한 구성원만이 해당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셋째,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본질적 자질을 공유하므로 모든 범주 구성원의 위상은 동등하다. 넷째, 따라서 본질적 자질의 유무를 통해 한 범주의 경계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정사각형’이라는 범주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직각인 형태’라는 본질적 자질로 정의된다. 이 자질을 소유한 것만이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정사각형의 지위는 동등하다. 끝으로, 정사각형이라는 범주의 경계는 뚜렷하다. 즉 정사각형 범주의 구성원인 것과 아닌 것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하나는 어떤 범주를 더 전형적으로 대변하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성원도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참새와 비둘기, 펭귄과 타조는 모두 새 범주에 속하지만 참새와 비둘기는 새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인 데 비해 펭귄과 타조는 몸집이 크고 날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새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범주 구성원이 모두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이라는 범주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게임에는 보통 경쟁이 있고, 전략이 존재하며, 육체적 기술이 필요하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쟁이 없는 게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육체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한 범주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어떤 공통 자질이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의 범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범주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이 등장했다. 첫째, 범주의 구성원들을 함께 묶는 주요 자질들의 집합이 존재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주요 자질 모두를 갖출 필요는 없다. 둘째, 범주의 구성원들은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몇몇 구성원과만 어떤 자질을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셋째, 범주의 어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보다 해당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넷째, 범주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 항목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범주들이 있다.

이때 어떤 범주의 전형적 구성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범주와 관련하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즉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휴식할 때 마시는 음료’에 대해 생각할 때 미국에서는 커피가 매우 전형적인 음료 중 하나지만, 영국에서는 차가 더 전형적인 음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국인이라도 휴식 시간에 매번 커피를 마셨다면 그는 ‘휴식할 때 마시는 음료’로 커피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컨대 A라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는 A라는 국가의 국민이 모두 게으르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 범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

람들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범주의 성격이 어느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태도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나]

한국어의 단어들은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품사로 분류된다.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어미(‘-으니까’, ‘-다’ 등)와 결합하여 형태가 변하는가 아닌가,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또 단어가 다른 말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쓰이는가 등이 품사 분류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예컨대 ‘명사’라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예: 사람이 많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예: 사람이, 사람을), ‘앞에는 관형어가 올 수 있다’(예: 훌륭한 사람), ‘다른 명사 앞에 놓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다’(예: 사람 노릇)와 같은 주요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명사로 분류된다. 한편 ‘관형사’라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를 꾸며 준다’(예: 흰 신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예: 흰이X, 흰을X), ‘자립적으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예: 흰이 많다X)와 같은 주요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형사로 분류된다. 예로 든 ‘사람’과 ‘흰’은 위에서 언급한 각 품사의 주요 속성들을 잘 보여 준다.

그렇다면 ‘간이 화장실’의 ‘간이’(뜻: 간단하고 편리함)는 어떤 품사에 속할까? 먼저 이 단어는 많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관형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의의X, 간이에X). 아울러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주어 기능을 하지 않는 점에서도 관형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이가 필요하다X). 한편 ‘간이’에 특정 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명사의 특성을 보인다(예: 간이로 설치한 문). 또한 ‘-성, -용’ 등과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데(예: 간이성, 간이용), 이는 명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인 데 비해 관형사는 가지기 어려운 속성이다.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미혼모 자녀들의 해외 입양이 진행되어 왔다. 흔히 해외 입양이 한국전쟁 직후 오갈 곳 없던 전쟁고아들을 대거 선진국으로 보낸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 입양은 한국의 경제가 초고속으로 발전하던 1980년대에 가장 많았다. 그 대다수는 미혼모의 자녀들이다.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늘어난 요즘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0년에도 국내와 해외를 모두 포함해 입양된 아이들의 90.9%가 미혼모의 자녀들이었으며, 이 중 해외 입양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혼모의 자녀들이었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고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로, 출산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언급되기도 한다. 결혼을 매개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정상 가족’ 범주의 표본으로 여겨지면서 그 밖의 형태는 ‘정상 가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고, ‘결혼=출산’이라는 등식이 지나치게 확고한 탓에 결혼 제도 바깥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라]

한국의 언론 매체는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범죄·자살·가정파괴 등 사회적 부작용이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길 좋아한다. 악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 선정적인 뉴스가 속칭 ‘잘 팔리는’ 언론의 속성에 부합한 선택인 셈이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를 의심한다. 용의선상에 거론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과정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정신병력 여부다. 용의자로 확인할 증거가 수집돼 특정되면 수사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그때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묻는다.

“피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나요?”

“예.”

이때 ‘조현병’¹⁾, ‘정신병력’ 여부를 기사 제목에 굳이 집어넣으면 방화 범죄는 정신질환자 범죄로 뒤바뀐다. 곧 기사는 포털사이트 메인에 소개된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치솟는다. 이런 뉴스가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이 소수의 사례를 전체에 적용한 고정관념임을 보여 준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인구 중 범죄자는 3.1% 수준인 반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자 비중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1) 조현병: 망상, 환각, 사고와 행동의 혼란 따위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적 질환

■ 예시 답안

제시문 (나)는 ‘간이’와 같은 단어가 명사와 관형사의 특징을 모두 지닌다는 점에서 두 품사의 경계가 불분명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과 ‘헌’처럼 명사와 관형사 범주의 전형적 구성원인 단어가 있는가 하면 ‘간이’처럼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다. 이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잘 설명된다.

제시문 (다)는 ‘결혼’ 자질을 갖춘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그 외는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현상을 언급하는데, 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정 자질을 갖춘 조건에서만 범주에 속한다는 생각, 곧 범주의 자질이 고정적이고 경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나타난 예인 것이다. 이는 미혼모 가정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결혼’ 자질을 갖추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가족 범주에 포함하는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

제시문 (라)는 ‘정신질환자’ 범주의 전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뉴스 보도가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일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런 경험에 입각하여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험에 따라 범주의 전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설명과 관련된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이미지를 정신질환자 범주 전체에 일반화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고정관념을 갖기도 한다. 이런 사고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전제되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 인식과 관련된다. 이는 정신질환자 전체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일부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 문항 평가 기준		
1. 수험생들은 먼저 제시문 (가)를 통해 범주를 정의하는 두 가지 관점, 곧 고전적 관점과 대안적 관점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나), (다), (라)에 서술된 현상이 각기 이 둘 중 어느 관점과 어떠한 점에서 관련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더하여 (다), (라)에 대해서는 제시문 (가) 중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안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범주를 고전적 관점으로 바라본 결과 생기는 고정관념의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의 관련 범주 및 관련 속성에 대한 설명에 25%를 배점하며, (다)의 관련 범주 및 관련 속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비판적 접근에 30%를 배점한다. 제시문 (라)의 경우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되는 내용이 모두 있으며 이들 둘을 모두 추리해야 하므로 35%를 배점한다. 여기에는 비판적 접근 또한 포함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제시문 (나), (다), (라)에 대한 분석의 근거로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범주에 대한 두 관점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성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
본질적 자질(속성)의 유무	· 범주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로 정의됨	·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본질적 자질이 없을 수 있음
구성원 자격의 결정	· 본질적 자질 집합을 모두 소유한 구성원만이 해당 범주 소속 가능	· 몇몇 구성원과만 어떤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해당 범주 소속 가능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특성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	
구성원 간의 차이 유무	· 모든 범주 구성원의 위상은 동등함	· 어떤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보다 해당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임 ·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은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범주 경계의 성격	· 본질적 자질의 유무로 범주의 경계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파악 가능	· 구성원 자격을 갖는 항목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범주 존재	
이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문 (나)~(라)에서 서술된 현상이 이 중 어느 항목과 관련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그에 더하여 (가)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내용, 곧 대안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범주를 고전적 관점으로 바라본 결과 생기는 고정관념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다), (라)의 분석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시문 (나)에서는 한국어의 품사 중 명사와 관형사라는 두 가지 범주를 제시하면서, 먼저 각각의 전형적인 구성원으로 ‘사람’과 ‘헌’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뒤 두 범주 모두의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의 예시로 ‘간이’를 들고 있다. 이 ‘간이’는 명사와 관형사라는 두 품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이면서, 동시에 명사의 범주에서는 ‘사람’, 관형사의 범주에서는 ‘헌’과 비교하여 보다 전형적이지 않은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명사와 관형사가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설명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에서는 우선 명사와 관형사 범주가 대안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범주에 부합하는 성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속성으로 ‘범주 경계의 불분명함’ 및 ‘구성원 간에 보다 더 전형적인 것과 덜 전형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전자(관련 관점 포착)에는 5%, 후자 중 두 가지 논점(범주 경계의 불분명성, 전형적 범주 구성원의 존재)에 각기 10%씩 배점한다.			25%
제시문 (나)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관련 관점	‘명사’와 ‘관형사’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설명되는 범주임	5%	
근거	‘간이’가 두 품사 범주(명사와 관형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여줌 (범주 경계의 불분명성)	10%	
	‘간이’가 명사의 범주에서는 ‘사람’, 관형사의 범주에서는 ‘헌’과 비교하여 보다 전형적이지 않은 구성원이 됨 (전형적 범주 구성원의 존재)	10%	
4. 제시문 (다)에서는 미혼모 자녀들의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한국의 가족주의에서 기인하는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즉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정상 가족’의 표본이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결혼’을 자질로, ‘정상 가족’을 범주로 본다면,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이라는 특정한 자질을 보유하는 조건에서만 ‘정상 가족’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즉 ‘결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과 더불어, 이 ‘결혼’이라는 자질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명히 정해지기에 범주 경계가 분명하다고 보는 고전적 관점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에 따라 가족을 바라보는 것은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정관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혼모 가족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에서는 먼저 제시문의 ‘정상 가족’ 개념이 범주의 고전적 관점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의 파악 여부와 함께, 그 근거가 되는 속성으로서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의 존재’ 및 ‘범주 경계의 분명함’에 대한 지적 여부, 그리고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의 제시가 채점 기준이 된다. 관련 관점 포착에는 5%, 그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논점(본질적 자질의 존재, 범주 경계의 분명함)에 각기 10%씩,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5%를 배점한다.			30%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관련 관점	‘정상 가족’이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보여줌	5%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근거	‘정상 가족’이라는 범주를 정의하는 본질적 자질로 ‘결혼’이 설정됨 (본질적 자질의 존재)	10%	
	‘결혼’이라는 자질을 기준으로 ‘정상 가족’의 범주에 소속되거나 제외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분명하게 나뉨 (범주 경계의 분명함)	10%	
비판적 접근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	5%	
5. 제시문 (라)에는 범주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나타나 있다. 우선 미디어에서 선정적인 뉴스를 통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자’라고 할 때 범죄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디어 뉴스를 접하는 반복적인 경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라는 범주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범죄자를 연상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말하는 ‘더 전형적인 구성원이 경험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현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범죄자’라는 이미지를 정신질환자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이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이는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라)에 대한 분석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뉴스를 접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이 대안적 관점에서 말하는 ‘경험에 의한 전형적인 구성원의 형성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했는지의 여부가 채점 기준이 된다. 이 현상을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관련짓는 것에 5%, 경험에 의한 전형적인 구성원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에 10%를 배점한다. 뒷부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관련지었는지의 여부에 5%, 그 근거로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포착했는지의 여부에 10%를 배점한다. 아울러 이것이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경험으로 전체를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판했는지의 여부에 5%를 배점한다.			
제시문 (라)에서 서술된 현상 분석		각 항목별 배점	35%
현상 1	관련 관점: 반복적으로 뉴스를 접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주를 생각할 때 범죄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현상을 범주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	5%	
	근거: 한 범주의 더 전형적인 구성원이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10%	
현상 2	관련 관점: 일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범주 전체로 확장하여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음	5%	
	근거: 한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임	10%	
비판적 접근	일부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함을 생각해야 함. 미디어에도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함.	5%	
6.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나 본문의 문장을 재구성 없이 그대로 옮겨 쓴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벗어난 표현이 다수 나타난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 외적인 부분 전반에 대하여 10%를 배점한다.			
10%			

오전 · 문제 2

[문제 2] 제시문 (마)와 이에 관한 (바)와 (사)를 바탕으로, (아)의 기술혁신 활용(유전자 가위)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결론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그 결론에 입각할 때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자)를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800±100자)

[마]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동시에 이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이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을 변경한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욕구를 충족하고 편익을 누리는 동시에 타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 윤리적인 사회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안녕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행위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하는 사회적 행위 및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

석탄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다. 나무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석탄은 단순히 화학물질이나 철을 만드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증기기관 등의 기계에 연료로 제공됐다. 이는 인류가 주된 에너지원을 나무와 목탄¹⁾에서 화석 연료로 전환하는 최초의 대규모 에너지 혁명이었다. 그 결과, 19세기 초 영국은 목탄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어 벌목이 감소하면서 숲의 파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현재는 세계 각국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에서 전기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 방식²⁾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이전보다 많은 구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에는 전통적인 발전소보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일곱 배나 많은 구리가 쓰인다. 일반적으로 구리 채굴은 암석을 폭파한 후 구리를 포함한 광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수백 톤의 암석을 처리해야 겨우 소량의 구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구리 가공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와 물이 소모되고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폐기물이 발생한다.

1) 목탄: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키거나 가열하여 만든 연료를 말한다.

2) 친환경 방식: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사]

서양의 과학이 소개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우산을 쓰는 행위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어, 개화기 선교사들도 우산을 쓰고 나갔다가 못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삼갔다고 한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자연의 이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와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여기서 잘 드러난다. 나아가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윤리적인 사회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윈(Darwin, C.)의 진화론은 원래 다양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인데도 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스펜서(Spencer, H.)가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빈부의 격차 등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사회상을 설명하려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인과적인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아]

생명과학의 대표적 기술혁신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교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희귀성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지고,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온도 변화, 가뭄, 병충해 등에 강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을 개발함으로써 식량문제도 줄이고, 이미 멸종된 생물을 복원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현재 우리는 기술적으로 맞춤형 아기의 출산까지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맞춤형 아기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유전자 구성이 선택되거나 변경된 아기이다. 현재까지는 치명적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 맞춤형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몇몇 국가에서 허용되었으나, 외모나 지능과 같이 개인이 선호하는 특정 유전 형질이 나타나도록 유전적 조작을 하는 적극적인 맞춤형 아기의 탄생도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자]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려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¹⁾에 대한 투자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 폐지나 완화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국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보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인프라 등도 포함된다.

■ 예시 답안

(1) 찬성 의견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인 유전자 가위의 제한적 사용에 대하여 찬성한다. 아직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자연의 질서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으나, 유전자 가위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난치병이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가위의 무분별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잘 통제하면 유전자 가위로만 가능한 각종 치료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은 분명 사회적 질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자연적 질서 및 사회적 질서에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술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유전자 가위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적절한 경제적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가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기업가정신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기술혁신이 자연적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유전자 가위의 사용이 현재에는 난치병 치료나 장기이식과 같은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훗날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구분을 바탕으로, 국가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2) 반대 의견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인 유전자 가위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하여 반대한다. 우선, 유전자 가위가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장기 부족 및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 기술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등 자연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가위가 기존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질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맞춤형 아기와 같이 원하는 유전 형질을 기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전자 가위가 제공하는 혜택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 이용에 있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기업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규제나 관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기술의 제한적 사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적 환경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희귀성 난치병 치료를 위해 맞춤형 아기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유전자 조작이 치료받은 인간의 또 다른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치료된 난치병의 유전 여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생명과학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아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되는 유전 형질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지, 미래 세대의 유전 형질을 과연 현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문제 2)	배점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채점 기준 (문제 2)	배점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에 <통합사회> 과목에서 나오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대립에 관한 서술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는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에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리성이 제고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되 결론의 도출에 도움이 안 되는 일반론만 제시하거나 일반론에서 추가적인 논증 없이 곧바로 결론을 도출한다면 가점을 부여하지 말 것 ***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에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나오는 ‘의무론적 접근’, ‘공리주의적 접근’과 ‘덕윤리적 관점’의 대립에 관한 서술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는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에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리성이 제고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되 결론의 도출에 도움이 안 되는 일반론만 제시하거나 일반론에서 추가적인 논증 없이 곧바로 결론을 도출한다면 가점을 부여하지 말 것	

구분	평가 기준		배점	
결론의 선택	입장의 선택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함	5%	10%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결론이 바람직함	5%	
논거의 제시	자연과 사회의 구분	과학기술이 인과적 자연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사회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되어야 함	10%	50%
	인과적 자연의 측면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됨(항목당 5점, 3개 이상 15점)	15%	
	윤리적 사회의 측면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 요구됨(항목당 5점, 3개 이상 15점)	15%	
	자연과 사회의 종합적 판단	인과적 자연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와 윤리적 사회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 요구됨	10%	
국가의 역할	경제적 효과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10%	30%
	안전에 관한 의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할 것인지	10%	
	존엄에 관한 의무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할 것인지	10%	
전체적 판단	논리적 완성도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평가	10%	10%

오후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라)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라)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100자)

[가]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인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해서 변화한다. 한 사회의 문화가 새로운 요소의 등장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 한다.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사회 내적 요인은 발명과 발견이 대표적이다. 발명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며, 발견은 이미 존재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회 외적 요인으로서는 다른 사회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화 전파가 있다.

발명, 발견 또는 전파를 통해 문화 변동이 일어나면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한다. 우선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 요소가 등장했을 때 이를 받아들여 기존 문화를 대체하려는 집단과 기존 문화를 유지하려는 집단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외래문화가 문화 변동을 주도하는 경우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훼손되어 사람들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편,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전통 규범과 가치관이 무너졌으나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개인과 사회가 혼란을 겪는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개 의식주, 기술 같은 물질문화는 빠르게 변하지만 제도, 규범, 가치관 같은 비물질문화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다. 그래서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문화 지체라 한다.

문화 변동으로 생겨나는 문제에 대처하려면, 다양한 문화 요소의 특징과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 요소 간 조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 변동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문화 변동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오늘날 파란색은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채이다.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색임에도 파란색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사회·정치·문화·예술 영역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색이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에게 파란색은 무지개에 없는 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경우 켈트족이나 게르만족 같은 미개인과 야만인의 색 또는 경계해야 할 색이었다. 붉은색, 흰색, 검은색의 3색 체계를 색의 근본으로 이해한 그리스 로마인들은 장례식 외에는 파란색 옷을 입지 않았다. 파란색은 상(喪)을 당한 암시이자 죽음을 연상시켰다.

파란색이 유럽에서 선호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경부터이다. 부정적 의미를 지녔던 고대의 파란색은 이제 귀족의 색,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변화했는데, 여기엔 중세 기독교 성화(聖畵)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10세기부터 성화 속 파란색은 ‘신의 현현¹⁾인 빛’으로 부각되었으며,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성당 스테인드글라스의 파란색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성스러운 빛이 발하는 색유리의 파란색은 하늘과 빛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했다. 동시에 색유리의 파란색은 쉽게 변질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색 또는 경험한 적 없는 아름답게 빛나는 신성한 색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화 속의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의복이 어두운 톤의 파란색에서 밝은 톤의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또한 당시 지배적이던 마리아에 대한 열렬한 숭배까지 더해져 파란색은 가장 아름다운 색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쳐 ‘모든 색 중 최고의 색’으로서 왕과 귀족들의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파란색의 미적 가치가 확연히 달라졌다. 13세기에는 염색업자들이 아름다운 청색 염료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되면서 파란색의 인기 상승에 공헌했다. 이러한 일련의 파란색의 가치 상승은 색의 서열을 완전히 새롭게 편성했다.

1) 현현(顯現)하다: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내는 것.

[다]

1066년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공국이 영국을 침략하여 정복한 사건을 노르만 정복이라 한다. 노르만 정복 직후 영국의 지배층은 노르망디 출신 귀족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영국에 프랑스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프랑스어는 영국 상류층의 주류언어가 되었다. 반면 영국인이 쓰던 영어는 그 보편적 지위를 잃고 하류층 서민들의 비주류 일상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상류사회로의 진출을 꿈꾸는 영국인들은 프랑스어를 배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도 프랑스어로 쓰이게 되었다.

노르만 정복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프랑스어 어휘가 영어에 유입되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가축의 명칭은 고대 영어에서부터 내려온 토착어(예: cow, pig, sheep)로 계속 쓴 반면, 요리용 고기(예: beef, pork, mutton)와 그 조리법(예: fry, roast, stew)은 프랑스어 차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토착 영국인은 가축을 기르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르만 귀족들은 그 고기를 요리로 즐겼던 생활 문화적인 계층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 당시 영국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기능이 위계적인 상태로 공존하는 양층어 사회¹⁾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10,000개의 영어 단어의 어원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프랑스어 차용어(45%)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노르만 정복 이후 약 400년에 걸쳐 들어왔다. 현대 영어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언어보다 더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시기에 일어난 급격한 어휘 증가가 이러한 풍부함의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다.

1) 양층어(兩層語) 사회: 한 사회가 두 개 언어를 쓰되 그 두 언어가 사회적 기능에서 차별적인 경우.

[라]

아동이 유연한 사회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폭넓은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제공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디지털 세계의 화면 기반 경험은 현실 세계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과연 온라인 게임이 친구들과 직접 어울려 노는 것만큼 사회성 발달에 좋을까?

1970년대 아케이드 비디오게임이 등장한 이후, 1990년대에는 인터넷과 3D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빨라지고 저렴해지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인터넷에 연결된 게임 콘솔은 청소년이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 전 세계 각지의 낯선 사람들과 조합을 바꿔가며 장시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비디오 게임을 하던 시절에는 게임 상대가 친구나 형제였고, 바로 옆에 앉아 흥분과 농담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게임을 했다. 그러나 청소년이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연결된 게임 콘솔을 갖게 되자, 제한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아동과 청소년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이루어진 안정적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잘 성장한다. 특히 친구들과 모험을 동반하는 신체 놀이를 함께 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연습을 한다. 반면 현실 세계 경험을 디지털 세계 경험으로 대체하면, 사회적 연결은 넓어지지만 사회적 경험은 얕아질 수 있다.

■ 예시 답안

문화 변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 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 변동에 대해 성찰하고, 조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제시문(나)는 고대에 미개인의 색, 죽음의 색 또는 중요하지 않은 색으로 여겨졌던 파란색이 12C경부터 신과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 가장 아름다운 색,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새롭게 인식된 변화의 역사를 보여준다. 여기에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발견이다. 파란색의 상징과 가치가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청색 염료 개발이 촉진되고 인간의 삶은 미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제시문(다)는 노르만 정복 이후 영어가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전파가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영국은 양층어 사회가 되었고 이는 집단 간 갈등과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 그러나 프랑스어의 유입으로 현대 영어가 풍부해졌다는 점은 문화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조화와 공존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시문(라)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게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발명에 따른 문화 변동의 사례이다. 기술의 발명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흥미롭고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경험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문화 변동이 일어났지만 그에 맞는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가 정립되지 않아 아노미 현상 또는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려면 디지털 세계 경험과 현실 세계 경험이 균형을 갖추도록,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신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학교나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문제 2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라)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각각 분석하는 것”에 총 60% (제시문 (나)~(라)를 분석하는 것에 각각 20%), 두 번째 요구사항인 “이를 토대로 (라)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3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 제시문 (나)의 문화 변동의 요인은, ‘발견’(파란색의 상징과 가치의 재발견)이다. 이에 더해 파란색의 가치 상승이 종교의 영역에서 사회·정치 영역으로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산, 전이된 것에 대해 ‘전파’로 해석하는 것, 13세기 청색 염료의 생산을 ‘발명’으로 해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발견’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전파’나 ‘발명’을 추가로 언급한 경우 설명이 타당하다면 감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면 감점한다. - 제시문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 변동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파란색의 재인식을 통해 파란색의 다채롭고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 제시문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전파’(노르만 정복-전쟁을 통한 직접 전파)이다. 참고로, 『통합사회』 교과서에 전파의 한 유형으로 ‘직접 전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학생들 중에는 이	60%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개념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가)에서는 ‘직접 전파’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직접 전파’를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파’와 ‘직접 전파’ 모두 답으로 인정한다. ④ 제시문 (다)에서는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전파가 일어난 직후에 ‘집단 간 갈등’과 ‘정체성 혼란’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점과 그 이후 영어 어휘가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면을 모두 찾아서 서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어의 지위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영어가 프랑스어에 동화되지 않고 프랑스어를 영어화하여 영어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참고로,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이러한 문화 변동의 양상을 ‘문화 병존’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 중에서는 ‘문화 병존’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하지만 제시문에는 ‘문화 병존’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다. ⑤ 제시문 (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발명’(디지털 기기, 온라인 게임 등의 기술 발명)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 인터넷, 3D 그래픽, 게임 콘솔 등의 기술이 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발명’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전파’를 추가로 언급한 경우 설명이 타당하다면 감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면 감점한다. ⑥ 제시문 (라)에서 문화 변동의 결과로,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이 기술 발전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지는 과정에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노미 현상’이나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⑦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60점)			
채점 요소의 예			
제시문	문화 변동의 원인	문화 변동의 양상	
제시문 (나)	‘발견’ (‘전파’와 ‘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파란색의 가치 상승이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전이·확장되어 인간의 삶이 미적으로 풍요로워짐.	
제시문 (다)	‘전파’ (‘직접 전파’로 설명할 수도 있음)	노르만 정복 직후 한동안 영어와 프랑스어가 주류어와 비주류어로 나뉘게 됨으로써 ‘집단 간 갈등’,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영어가 프랑스어에 동화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영어의 어휘가 풍부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음. (‘문화 병존’ 개념을 언급하여 설명할 수 있음.)	
제시문 (라)	‘발명’ (‘전파’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이 기술 발전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규범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아 ‘아노미 현상’,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남.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① 제시문 (라)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디지털 세계의 화면 기반 경험’이 늘어나고 ‘현실 세계의 경험’이 줄어들어서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세계의 화면 기반 경험’은 ‘친구들과 직접 어울려 노는 것’이 아닌 ‘방 안에서 홀로’ 노는 것이며, 안정적인 집단 속에 속하는 경험이 아닌 낯선 사람들과 알게 연결되는 경험이며, ‘제한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 문제는 서로 특성이 다른 ‘현실 세계 경험’을 ‘디지털 세계 경험’으로 완전히 ‘대체’했을 때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②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제시문 (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삼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과 대처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한 편의 글로서 일관성을 지니는지 확인한다. 앞서 기술한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논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시문 (가)의 마지막 단락에서, 문화 변동으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 간의 조화와 공존’, ‘문화 변동에 대한 성찰’을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두 번째 요구사항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과제라기보다는,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처 방안은 제시문 (라)에서			30%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문 (가)에서 얻은 지식, 제시문 (나), (다)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30점)			
채점 요소의 예			
대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초점	참고 사항		
제시문 (가), (다)의 내용 : ‘조화와 공존’, ‘풍요로운 삶’	‘디지털 세계 경험’과 ‘현실 세계’ 경험 중 둘 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배척되거나, 둘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상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제시문 (가)의 내용 : ‘문화 변동에 대한 성찰’	‘현실 세계 경험’과 비교하여 ‘디지털 세계 경험’의 강점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세계 경험’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성 있는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시문 (라)의 내용 : ‘아노미 현상’,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한 대처	『사회·문화』 교과서의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문화 변동이나 새로운 물질문화에 적합한 사회 규범, 제도 등을 확립하고, 그것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의식 변화와 규범을 정립하려는 캠페인, 재사회화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타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 학교와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고찰할 수 있다.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 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 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 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총 배점 10점)			10%

오후 · 문제 2

[문제 2] 제시문 (마)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아)에 나타난 무역 확대의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을 비교·분석하시오. (800±100자)

[마]

각 국가는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조건이 다르고,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도 차이가 나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생산비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¹⁾하여 상호교환하는 것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익이다. 국가 간 교역 증가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시장이 확대되어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의 상품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교통수단과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 간 교역품은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 및 자본 등 생산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교역의 증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무역의 비중이 높은 상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국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아가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위협받고 심지어 실직에 이를 수도 있다. 확대된 국제무역은 경제 부문 외에도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 및 민간의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영향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1) 특화: 각국이 자국에서 생산하기에 유리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

[바]

A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국제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2024년 현재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산업은 연간 원화 약 26조 원 규모로 A국에서 광업, 관광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업으로 성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A국을 찾은 해외 유학생들은 연간 70만 명에 육박했다.

유학생의 대다수는 중국, 인도, 한국, 태국 등에서 온 학생들이다. 졸업 후 이들은 A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팬데믹 이후 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심해지며, 유학생을 노린 집단 폭행 사건도 현저히 증가했다. 이에 중국과 인도 정부는 자국민에게 해외로 유학 갈 경우 A국은 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A국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는 유학생들로 인한 높은 수요로 2023년 한 해에만 임대료가 15% 이상 폭등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지자 A국 정부는 2025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에 32만 3천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였는데 이를 27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자 수수료를 약 63만 원에서 약 152만 원으로 인상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A국 대학교들은 유학생 숫자가 감소하면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유학생 제한조치로 인해 2025년 A국 경제 규모는 약 3.1조 원이 감소할 것이며, 고등교육 기관에서 종사하는 2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

1970년대부터 B국 정부는 자국민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2017년 약 230만 명의 B국 이주노동자들이 전 세계 218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년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B국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주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다. 매년 17만 2천 명의 B국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홀로 해외로 이주한다. B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나 의사로 일하던 전문직 여성들도 북미, 서유럽, 중동 등의 국가에서 가사도우미나 보모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B국 여성의 취업 기회나 보수 등은 그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능력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사도우미와 같은 직업의 특성은 근무지가 사적 공간인 가정이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노동 착취나 피고용자를 상대로 한 학대가 발생하기 쉽고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 가사도우미가 외국인이며, 비자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가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B국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고용주로부터 학대, 감금, 임금체불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겪었다고 증언한다. B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유엔 인권 기구와 세계 노동 기구(ILO)에 보고하며 언론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주노동자들을 ‘현대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B국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비판과 인권 개선 활동을 반기지 않는다고 보도한다.

[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과 함께 2차전지 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이다. 2차전지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0.8%에서 2023년 1.6%로 증가하면서 해당 산업은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입 규모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2차전지의 원료는 흑연, 니켈, 코발트 등 천연광물이 대부분인데,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자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차전지 핵심 광물 중 하나인 흑연의 전 세계 채굴량 중 약 70%(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입하고 있다.

구분	천연흑연 수입 동향			인조흑연 수입 동향		
연도	대중국수입	중국외수입	전체	대중국수입	중국외수입	전체
2020	78,584	8,022	86,606	83,080	15,702	98,782
2021	84,454	9,187	93,641	98,218	14,273	112,491
2022	105,114	6,270	111,384	120,376	9,003	129,379
2023(9월)	65,326	1,527	66,853	74,613	4,474	79,087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 달러)

2차전지 시장의 확대로, 국내 기업은 상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배터리의 용량, 충전속도,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 제품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전기차, 전력망 등 다른 분야로의 파급력이 큰 2차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수입 광물의 자립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특화단지에 도로, 전력, 용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OO배터리(주) 전략팀에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된 김부장은 얼마 전 중국에서 흑연 채굴량 과다로 지하수 오염 등 채굴지의 자연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뉴스와 함께,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환경 및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해 흑연의 채굴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통제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에 김부장은 국내 공장의 흑연 재고 추가비축을 요청하고, 구매팀을 통해서 아프리카 국가 등 흑연 수입 대체국가를 물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부장은 정부가 중국과 핵심 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예시 답안

(바)에서 정부의 유학생 유치 노력은 A국 교육 수출 및 유학생 유치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총생산 증가, 고용 창출 및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성장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유학생 유입으로 인한 인종적, 문화적 갈등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사)의 경우 B국의 생산 요소인 노동 수출을 통한 무역 확대 추진으로 파견 인력과 가족의 소득 및 국내총생산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고급인력의 비효율적 활용과 파견 인력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에서 정부의 2차전지 산업 지원정책은 관련 종사자의 소득 증대,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관 산업 및 첨단기술 발전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되었다.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자원 의존으로 국내 경제가 타국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문제가 있다.

(바)~(아)를 비교하면, 모두 국제무역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관련 산업을 특화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경제 및 사회 제반 분야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바)와 (아)에서 각각 임대료 폭등 및 자원 의존도 심화가, 사회문화적으로는 (바)의 인종차별과 (사)의 인권침해가, 환경적으로는 (아)의 수질오염 발생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한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주체가 (바)는 국가(A국 및 타국 정부) 위주이며, (사)는 민간 사회단체라는 점이 주요 차이점이다. 반면 (아)는 자원 의존도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계, 기업, 정부 등 관련 경제주체 모두가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각 제시문에서 무역 확대의 부작용 이후 국가적 대응이 (바), (사), (아) 순서로 일부 후퇴, 특별한 대응 없음, 정책적·외교적 노력 지속 등으로 각각 상이하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문제 2)		배점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 학생들이 (마)에 제시된 무역 확대의 영향 개념을 적용하여 (바)~(아)에 나타난 사례를 각각 분석하는 부분에 45%를, 무역 확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분석에 30%, 대응에 대하여 (바)~(아) 사례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논하는 부분에 15%를,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마)로 제시문 (바)를 분석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교육 수출산업을 국가(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무역 확대가 이뤄짐. 긍정적 영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산업 관점: 교육산업의 고용 창출 및 주택 임대차시장의 확대 - 정부 관점: 국내 총생산 증대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 유학생의 동반가족에 의한 긍정적 경제적 영향 및 유학생 유치산업의 성장 및 고등교육기관 재정 안정을 서술할 경우 가점 부여 ※ 경제주체별 긍정적 영향을 서술하지 않고 국내 총생산 증대 또는 국내 경제 활성화 등 단편적으로만 서술할 경우 일부 감점	15%

구분	평가 기준	배점
	부정적 영향 - 유학생 숫자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 임대료 폭등 -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A국에 잔류하여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것 - 급증한 유학생 숫자로 인해 A국 국민과의 사이에 인종적, 문화적 갈등 증폭 ※ 타국 정부(인도 및 중국)와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서술할 경우 가점 부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 정부: 유학생 비자발급 축소 및 심사기준 강화와 비자 발급 수수료 대폭 인상 - 타국 정부: 인도 및 중국의 A국 유학 자제 권고 - 민간: A국 대학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10%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긍정적 영향 정부가 자국 인력의 해외파견, 즉 생산 요소(노동) 수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무역의 확대가 이뤄짐. 긍정적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가계 관점: 해외 파견 인력 가족의 소득 및 소비 증가, 해외 취업 기회 - 기업 관점: 해외 파견 인력 앞선 산업의 일자리 창출 - 정부 관점: 해외 파견 인력의 본국 외화 송금으로 국내 총생산 증대 및 국내 경제 활성화	15%
	부정적 영향 - 해외 파견 인력 개인 삶의 황폐화(가족과 공동체와의 연결 차단) - 수입국에서의 해외 파견 인력의 인권 침해 ※ 국가 차원에서 수출국은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 및 그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국내 경제의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상실한 것을 서술할 경우 가점 부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 민간: 사회단체의 인권 개선 운동, 국제 인권 기구 등에 문제점 보고 등 - 정부: 수출국 정부의 무반응 및 사회단체의 해외 인력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적대적 반응	10%
제시문 (마)로 제시문 (아)를 분석	긍정적 영향 2차전지 산업 확대를 국가(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무역 확대가 이뤄짐. 긍정적 영향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가계 관점: 2차전지 관련 종사자(제시문의 김부장 사례 활용 가능)의 가계 소득 증가 및 관련 소비 증가 - 기업 관점: 경쟁 및 연구개발(기술혁신)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효율성 강화 및 기업투자의 증가 - 산업 관점: 전후방(전기차, 철강산업 등) 연관산업 발달 - 정부 관점: 첨단 국가기술 확보 및 국부 증대, 국내 경제의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 작성자에 따라서 기업과 산업의 관점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음. ※ 작성자에 따라서 해외(중국)의 흑연 채굴량 증가에 따라 중국의 국부, 관련 산업 및 관련 산업 내 기업 종사자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활성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점 부여 ※ 경제 주체별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2차전지 산업 확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부가 증가하는 등 단편적인 장점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일부 감점	15%
	부정적 영향 -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확대됨.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심화되고, 국내 경기의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등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어 환경적 문제가 발생 가능 - 우리나라와 중국 간 흑연 수입 문제로 인한 통상마찰의 발생 가능성 ※ 작성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흑연 자원 의존도가 연도별로 점차 심화됨(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이 연도별로 증가)을 지적하고, 특히 심화도가 더욱 높은 천연흑연을 언급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작성자에 따라서 중국 내 정치 외교적 문제 등의 국내 전파, 보호무역주의의 발생 가능성, 흑연 채굴국가 관련 종사자 등의 노동착취 등 사회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함.	

구분		평가 기준	배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 가계(기업): 흑연 재고 수급 노력, 원료 수입선 다변화 - 정부: 기업의 자원 수급 자립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중국 정부: 흑연 채굴량의 감소 정책 및 해외 수출 통제 ※ 작성자에 따라서는 가계(기업) 차원의 추가 대응방안으로 원료의 국산화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흑연 대체물질의 개발 등을 제시할 수 있음.	10%
제시문 (바)~(아) 의 비교 분석	공통점	- 모두 국제무역 확대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의 특정 산업에 대한 특화 및 정책적인 지원이 존재함. 예를 들어 제시문 (바)는 정부가 자국 내의 발달한 교육 인프라(산업)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제시문 (사)는 값싸고 질 좋은 자국 내 인력에 특화하여 자국민 인력의 해외 파견 정책을, 제시문 (아)는 2차전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출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정책지원 결과, 제시문 (바)~(아)에서 모두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그 영향이 경제적 문제 외에도 다른 사회 제반 분야(사회문화적, 환경적 분야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하여 관련 경제주체 및 민간단체의 대응이 존재하는 점이 주된 공통점임.	15%
	차이점	- 국제무역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대응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남. 제시문 (바)의 경우 주로 국가적(비자발급 축소 및 인도·중국 등 타국 정부의 대응)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며, 제시문 (사)의 경우 민간 사회단체의 대응이 중점적임. 반면 제시문 (아)의 경우 자원 의존도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계, 기업 및 정부 등 관련 경제주체 모두가 대응하는 양상임. - 제시문 (바), (사)의 경우 대응의 대상이 경제 문제 외에도 사회문화적 문제라는 점이 공통점이며, 제시문 (아)의 경우 환경적 문제가 경제 외의 추가적인 대응 대상임. - 국가적 대응의 경우 제시문 (바), (사), (아)의 경우 각각 무역 확대 정책의 부작용 이후 일부 후퇴((바)), 특별한 대응 없음((사)), 정책적·외교적 노력 지속((아)) 등 상이하게 나타남. ※ 작성자에 따라서는 제시문 (아)의 경우 정부의 외교적 대응 측면을 강조하여 작성할 수 있음.	

2024학년도 인문계열 (서울캠퍼스)

오전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시오. 이때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시오. (800±100자)

[가]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흔히 사실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순서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역사가이다. 카이사르가 루비콘이라는 저 작은 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은 역사가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일이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이와 더불어 굴절 또한 경험한다. 역사가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인간이므로 개인적인 기호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불가피하게 역사가의 눈, 곧 현재의 관점에 의한 해석을 통해 굴절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그 당시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생긴다.

하지만 역사가는 사실의 비천한 노예도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이며, 둘 중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인 선택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이끌어 준 잠정적인 해석에서 출발한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사실의 해석과 사실의 선택 및 정돈 이 두 가지는 미묘하고도 얼마간 무의식적일 수 있는 변화들을 겪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와 과거의 상호 관계이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이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사실을 가지지 못하면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가 되며, 역사가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도 의미도 없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떠받치는 철학은 유물론이고, 인식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유물론은 물질세계가 인간의 관념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이다.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이 먼저고 인간 정신과 의식은 나중에 생긴다. 유물사관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변증법의 의미는 다른 개념들이 흔히 그렇듯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졌다. 변증법이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이는 관념론 철학자 헤겔이었다. 헤겔은 사물을 대립하는 것의 통일로 간주했다. 세계가 내부의 대립과 모순을 동력으로 삼아 변화한다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인식의 방법론을 변증법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방법론을 헤겔의 관념론 철학에서 떼어 내 유물론 철학과 결합함으로써 유물사관의 뼈대를 세웠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미래를 바꾸는 데만 관심을 쏟았고 과거를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작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그의 철학을 따르는 역사가들이 떠맡아야 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역사 서술의 법칙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실을 수집해 그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면 충분했다. 그들은 지역, 민족, 사회 또는 국가의 과거 상태를 보여 주는 유적, 유물, 언어, 풍속, 문헌 등 모든 종류의 사료에서 필요한 정보와 사실을 찾아내 역사의 과정을 원시공산제¹⁾에서 노예제와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에 이르는 것으로 재구성했다.

1)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성립 이전의 원시 사회의 사회 조직. 생산 수단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공동으로 노동하여 그 성과를 평등하게 배분하며 계급 지배가 존재하지 않고 주로 혈연적인 결합으로 형성된 인류 최초의 사회 제도.

[다]

“상감마마, 마음을 든든히 하시오.”

알천¹⁾은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아뢰었다.

“아니, 이 몸의 갈 날이 이르렀소. 이 몸이 철없는 어린 여자의 몸으로 임금인 지 팔 년 동안 큰 허물이 없이 지낸 것은 다 알천 상대등의 충의의 힘시오. 이 몸이 죽은 뒤의 일은 다 알아서 하시오.”

왕²⁾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천은 무어라고 아뢰 바를 몰라서 다만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왕은 다시 말을 이으시며,

“고구려와 백제가 다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으니 앞으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소. 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려 하나, 이것은 외인³⁾을 불러서 형제를 치려 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몸이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차라리 백제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서로 화친할 것을 말하고 세 나라가 한곳에 모여 서로 맹약함이 좋을까 하오. 행여 당병⁴⁾을 이 땅에 끌어들이지는 마오.” 하시는 유칙⁵⁾이 계시었다.

- 이광수, 『원효대사』, 1942

1) 알천(閼川, ?~?):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上大等)을 역임한 신라의 장수·귀족.

2) 왕: 신라 제28대 국왕인 진덕여왕(眞德女王: ?~654, 재위 647~654)을 지칭함.

3) 외인(外人): 다른 나라 사람.

4) 당병(唐兵): 당나라 병사.

5) 유칙(遺勅): 임금이 생전에 남긴 명령.

[라]

삼국 말기에는 상호 교류와 영역 변동 등을 통해 삼국의 주민 간에 풍습·제도·의복 등 생활 양태에서의 동질화도 진전되어 갔다. 그래서 이 시기 제3국 사람들이 삼국의 주민을 같은 족속으로 분류하여, 이를 삼한(三韓)이라 하는 ‘이름 붙이기’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 당과의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신라 조정의 주도하에 전면으로 내세워졌다. 삼국인이 같은 한(韓)에 속한 세 집단으로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의식이 그것이다. 삼한이란 새로운 ‘이름 붙이기’와 ‘이름 부르기’가 합치하는 양상의 일면을 보인 것이다.

이어 통일신라기 2백여 년 동안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상당한 공통성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 영역 내의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문화적 융합도 진행되었는데, 서민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간 불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족 의식 또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소외되었던 백제·고구려 유민들에게는 그것은 피동적인 귀속 의식 이상은 아니었고, 내면의 한편에는 삼국 유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면이 신라 말 농민 봉기의 파장에 편승하여 후삼국의 정립으로 나타났다.

■ 예시 답안

역사 서술은 역사가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역사가에 의해 취사선택되며,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의 현재 입장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과거 당시의 맥락과 분리되어 굴절되기도 한다. 현재를 사는 역사가의 가치관, 편견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편향될 수 있는 역사가의 감정적인 선택과 해석은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과거를 향한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는 역사가의 노력, 즉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 속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제시문 (나)에서 역사가들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토대로 역사의 법칙에 대한 관점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실만을 취사선택하여 관점에 맞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경우 역사가의 관점에 반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무시될 위험이 있으며, 선택된 사실의 해석에서도 각 사실과 결부된 과거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 작가는 진덕여왕의 발언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형제이고 당나라는 외국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보여 준다. 하지만 제시문 (라)에 따르면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에야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그 이전인 (다)의 시점에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로, 당나라는 외국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는 삼국이 하나로 통일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작가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반영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즉 현재 입장에 따른 과거 사실의 굴절이 지나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 당시의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 문항 평가 기준 1.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 즉 역사가에 의해 서술 대상이 취사선택된다는 속성, 그렇게 해서 선택된 서술 대상이 역사가의 현재 관점의 영향을 받아 해석됨으로써 굴절된다는 속성, 하지만 이처럼 편향될 수 있는 선택과 해석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실, 과거 사실이 놓인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유의점을 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의 요지에 입각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가)에 나타난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을 이해하는 것에 30%,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20%,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40%,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2.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가)에 제시된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진술해야 한다.			30%
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		각 항목의 배점	
① 역사 서술의 속성	‘취사선택’의 속성.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모두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역사가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기술됨.	10%	
	‘굴절’의 속성. 역사적 사실이 역사가의 현재 입장에 따라 해석됨으로써 과거 당시의 맥락과 분리되어 굴절됨.	10%	
② 역사 서술의 유의점	편향될 수 있는 선택과 해석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실, 과거 사실이 놓인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함.	10%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3. 제시문 (나)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20%
제시문 (나)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각 항목의 배점	
① 제시문 (나) 분석	이미 정해진 철학과 인식 방법론을 바탕으로 역사의 법칙에 대한 관점을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실만을 취사선택함.	5%	
	아울러, 그렇게 해서 선택한 사실을 미리 정해진 관점에 따라 해석함.	5%	
② 제시문 (나) 평가	취사선택에서 과거의 사실과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였음. 역사가의 관점에 반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무시될 위험이 있음.	5%	
	해석에서도 과거의 사실과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였음. 각 사실과 결부된 과거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위험이 큼.	5%	
4.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부분을 채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제시문 (다)를 분석하도록 했으므로, 제시문 (라)의 내용과 무관하게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점한다.			40%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각 항목의 배점	
① 제시문 (라)의 요지 파악	제시문 (라)에 따르면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에야 싹트기 시작함.	10%	
② 제시문 (다) 분석	제시문 (다)에서 작가는 진덕여왕의 발언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형제이고 당나라는 외국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보여줌.	10%	
③ 제시문 (다) 평가	삼국 통일 이전인 제시문 (다)의 시점에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는 형제로, 당나라는 외국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따라서 이는 작가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임.	10%	
	현재 입장에 따른 과거 사실의 굴절이 지나치게 이루어진 경우로, 과거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10%	
5.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 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나 본문의 문장을 재구성 없이 그대로 옮겨 쓴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벗어난 표현이 다수 나타난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오전 · 문제 2

[문제 2] 제시문 (마)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바), (사), (아)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시오. (800±100자)

[마]

사람은 항상 다른 동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 단지 그들이 선심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의 자애심¹⁾이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도록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구받은 그 일을 해 주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타인과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제의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피차간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대부분을 얻게 된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분명하고도 단순한 자유의 체계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공평무사한 재판에 달려있다. 모든 개인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독립되어야 한다. 재판관은 행정부의 변덕에 따라 면직²⁾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사법 행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믿음이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데 국가의 권위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나라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간 번성할 수는 없다. 요컨대,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1) 자애심: 자기사랑(self-love). 자애주의는 이기주의(egoism)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기주의는 모든 것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태도를 말함.

2) 면직: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바]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시장 참여자 간에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공급자가 하나 또는 소수인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이에 해당한다. 독과점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경쟁시장에서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누려야 할 잉여의 상당 부분을 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당하게 된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분할 지배하고 있는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담합 기업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차별성이 없는 비슷한 상품에 대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도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경제적 이득을 빼앗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사]

오늘날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 손꼽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상호주의, 책임감과 같이 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비공식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형의 자산이다. 저개발국의 경우 국부의 창출에 천연자원의 비중이 중요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천연자원이나 인적 자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이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에밀리아 로마냐와 투스카니와 같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많은 활동적인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시민들은 후원이나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평등의 구현에 노력해 왔다. 사회적·정치적 네트워크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조직된다. 이러한 시민 공동체는 연대, 사회적 참여, 통합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반대로 칼라브리아와 시실리와 같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시민적 문화가 아니다. 이곳에서 시민의식의 개념은 방해받는다. 사회적·문화적 단체에의 참가는 미미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과 같은 남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법이 붕괴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 두려워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한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부도덕한 관행에 사로잡혀 거의 모든 사람이 무기력하고, 착취당하며, 불행하다고 여긴다.

[아]

경기가 과열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근로 의욕이 저하되며, 투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이 성행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과도하게 나빠지는 불황이 계속되면 실업이나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지나친 경기 과열이나 불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를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는 “경기 불황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저축은 늘어나는데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아 수요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 소득이 줄면서 소비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과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처음에 샤워 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바보는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게 하려고 샤워 꼭지를 열른 더 돌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이러한 샤워실의 바보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 과열이나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정책 효과의 지연을 일으켜 오히려 경기 불안이 가중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개입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 예시 답안

제시문 (마)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자비심이 아닌 자애심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 신뢰, 법과 제도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논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함으로써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신뢰의 체계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상업과 제조업은 국가의 사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라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특히 소유재산에 대해 안전을 느끼게 하고 계약 준수에 대한 서로 간의 믿음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공정한 재판은 신뢰의 체계에 필수적이다.

제시문 (바)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마)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에서 특히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독점가격, 가격 담합, 불리한 거래 조건, 허위광고는 모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제시문 (사)는 국가가 시장경제를 위해 무형의 자산인 신뢰, 책임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적 자본을 갖춘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과 신뢰의 체계가 무너진 남부 지역의 비교를 통해 잘 보여 준다. 이처럼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점에서, 국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무관한 비경제적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 (아)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에서 특히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시장경제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조건을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복수의 방법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관점이 대립할 수도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문제 2)		배점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 2는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1.5배를 배점하고,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 제시문 (마)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30%, 제시문 (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20%, 제시문 (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20%, 제시문 (아)를 분석하는 부분에 20%,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구체적으로 아래 채점기준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마)	이해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로서 자애심에 대한 호소(보이지 않는 손)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으로서 상호 간 신뢰(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익의 추구) ○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국가에 의한 독립적인 재판)	15%
	분석	○ 시장경제는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작동하며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	15%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바)	이해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실패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측면	10%
	분석	○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시장이 작동하는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를 침해함 ○ 국가가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10%
제시문 (사)	이해	○ 사회적 자본과 시장경제의 관계 ○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방안	10%
	분석	○ 시장경제의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비경제적 측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국가의 비경제적 개입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10%
제시문 (아)	이해	○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견해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인정됨 ○ 시장경제의 조건이 되는 상호 간 신뢰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내포함	10%
	분석	○ 경제 안정화 정책은 시장경제의 조건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서 정당함 ○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한 견해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답안은 논점의 일탈임	10%
기타		○ 글 전체의 논리적인 정확성, 체계성, 타당성 등을 종합함 ○ 설문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적절하게 감점함	±10%

오후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나)~(라)의 입장을 (가)의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된 것을 골라 각각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시오. (800±100자)

[가]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관이다. 의무론의 대표 학자인 칸트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욕구를 극복하고 스스로 정립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인간 의지는 고귀하며, 이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적 행위를 인간다움의 핵심적 요소가 되게 하였다.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윤리관이다. 결과론은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한다. 벤딕트 밀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무론적 윤리와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 중심 이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현대 윤리학에서는 행위를 둘러싼 맥락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답론 윤리적 접근과 책임 윤리적 접근이다. 답론 윤리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은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규범 체계이며,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책임 윤리적 접근은 보다 확대되고 심화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역할에 따른 책임과 보편적 책임 그리고 하지 않은 행위와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책임의 범위와 대상도 개인을 넘어 집단, 미래 세대, 동물, 생태계 등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이 접근은 당면한 윤리 문제를 책임의 관점에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나]

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직기가 발명되어 직조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자 직조공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숙련 노동자였던 직조공들은 일자리를 잃고 단순 생산직으로 내려앉아 비숙련 노동자의 대접을 받았다. 때마침 제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내몰린 농민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처우 역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노팅엄셔, 더비셔 등지의 양말공을 필두로 요크셔, 랭커셔의 모직물공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 기계 파괴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과학기술은 오히려 더 발전하였으며, 공장의 자동화는 더 가속화되었다. 이런 성과들이 방직, 방적 산업 및 관련 산업들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냈다.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새로운 과학 시대, 이른바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고도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갖춘 AI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직업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직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빼앗길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다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AI 로봇의 활용과 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사회 발전과 인간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다]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한다. 반면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존할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및 환경과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여 생태계의 안정을 깨뜨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에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태 중심주의의 관계 설정 방식은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이 AI 로봇을 ‘인공 노예’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AI 로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818년에 발표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림받는 괴물의 절규가 마음을 울린다. “나는 네 피조물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죽음을 맞지 않는 한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얹혀 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나도 당신과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

[라]

우리는 앞으로 AI 로봇을 두고 ‘인간이 아닌 기계’라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 로봇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AI 로봇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 지능을 모방하고 인간 역할을 대신할 AI 로봇은 곧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윤리적 행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들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AI 로봇이 자유 의지 또는 도덕감을 가진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AI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로봇을 도덕 행위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통적 윤리 규범을 알고리즘화하여 입력하는 하향식이고, 다른 하나는 AI 로봇이 다양한 현실 상황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보상을 받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별 행위 지침을 학습해 나가는 상향식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인간처럼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행위를 하는 AI 로봇의 개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AI 로봇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AI 로봇의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하는 과제도 필요하다. 가령, 환자를 돌보는 AI 로봇을 가족과 같은 특수한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 또는 보조 간호사로서 보편적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를 고민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AI가 빅데이터에만 의지하여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왜곡이나 비윤리적 정보의 수용으로 인해 AI 로봇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예시 답안

(나)는 AI 로봇의 발달이 인간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 인간 사회에 주는 전체의 혜택이 더 크므로 AI 로봇 기술의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 좋은 것이라 보는 결과론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는 AI 로봇에 대한 공감적 접근과 책임 인식을 중시하면서, 생태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인간과 AI 로봇 사이도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이는 AI 로봇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책임 윤리적 접근이며, AI 로봇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균형과 안정을 이끌어 전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론적 접근으로도 볼 수 있다. (라)는 AI 로봇의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과 행위 지침 등을 구체화하는 과제가 중요한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AI 로봇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AI 로봇의 의미 구성 과정의 과제를 제시하고 합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담론 중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 AI 로봇이 학습해야 하는 ‘보편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접근도 관여한다.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을 위한 조건은 네 가지다. 첫째, 인간 삶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AI 로봇 기술 발전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AI 로봇에 대한 공감적 접근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인간과 AI 로봇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AI 로봇의 윤리적 행동을 위해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 의사소통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AI 로봇이 발달함으로써 소외되는 사람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AI 로봇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 문제 1은 문과대학,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 문제의 요구를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로 분량을 채우거나, 합당한 근거의 뒷받침 없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견해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에 포함된 구절을 따옴표 등의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 문제가 답안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쓸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안은 서론과 결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이 요구하는 사항 전부를 본론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항의 요구사항 중 일부로 서론 또는 결론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제시문 (나)~(라)의 입장을 (가)의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된 것을 골라 각각 분석하는 것”에 총 60% (제시문 (나)~(라)를 분석하는 것에 각각 20%), 두 번째 요구사항인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는 것”에 3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
-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 제시문 (가)에 제시된 4가지의 윤리적 접근법 중에서, 제시문 (나)의 입장은 (가)의 ‘결과론’, 제시문 (다)의 입장은 ‘책임 윤리적 접근’, 제시문 (라)의 입장은 ‘담론 윤리적 접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시문 (나)~(라)에는 각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된 핵심어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접근법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는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 제시문 (나)~(라)의 입장을 분석하라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 지어 제시문의 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요약하였는지에 따라 가점한다. 다음으로 윤리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제시문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였는지에 따라 추가로 가점할 수 있다. - 제시문 (나)~(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윤리적 접근법을 하나 더 연관 지어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그 설명이 타당하다면 가점할 수 있다. 다만 설명에 오류가 있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는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기준 및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60%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채점 기준		배점	
제시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을 명시하지 못한 경우		0점	
제시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을 정확하게 명시한 경우		5점	
윤리적 접근법에 연관 지어 제시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경우		10점	
윤리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제시문의 입장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했거나, 또는 관련된 윤리적 접근법 하나 더 제시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경우		5점	
각 제시문에 관련된 부분 당 총 20점			
채점 요소의 예			
제시문	윤리적 접근법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내용	
제시문 (나)	결과론	일자리 증가, 사회 발전과 인간 행복에 기여	
제시문 (다)	책임 윤리적 접근	유기적, 상호 의존적 관계, 도덕적 책임	
	결과론(추가 적용 가능)	AI 로봇의 안녕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포함	
제시문 (라)	담론 윤리적 접근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인간 사회가 우선 윤리 규범과 윤리적 행동 지침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켜야, 그것을 토대로 AI 로봇을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현실 상황에서 칭찬을 받거나 실패를 겪으면서 행동 지침을 학습함,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	
	의무론(추가 적용 가능)	도덕 행위자로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의지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① 앞서 서술한 내용과 연관 지어 두 번째 요구사항에 답해야 하므로, 두 부분이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한 편의 글로서 일관성을 지니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내용과 무관한 내용, 특히 윤리적 접근법과 무관한 내용을 논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는 과제이므로,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윤리적 접근법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각 5점을 부여하며,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최대 20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기준 및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30점)			
채점 기준		배점	30%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다른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0점	
앞서 기술한 내용과 관련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각 5점	
※ 채점 예시 제시문 (나)~(라)에 각각 관련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 15점 윤리적 접근법 네 가지에 관련지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경우 → 20점			
각 조건의 서술이 논리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경우		5점	
제시문의 내용에서 머무르지 않고 통찰력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5점	
		총 30점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채점 요소의 예			
인간과 AI 로봇과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	윤리적 접근법	예시	
	의무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강조 최소수혜자 및 소외되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	
	결과론	사회의 발전 가능성, 인간 능력의 가능성 확대 AI 로봇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험성 제거	
	책임 윤리적 접근	AI 로봇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 AI 로봇의 존재에 대한 윤리적 대우와 도덕적 책임	
	담론 윤리적 접근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AI 로봇 개발을 위해 윤리적 담론의 성숙이 필요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 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 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 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10%

오후 · 문제 2

[문제 2] 제시문 (마)의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바)와 (사)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의 한계점을 논하시오. (800±100자)

[마]

개인은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또한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이기도 하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예컨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업적이 포상의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그릇된 통념이다.

[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란 독일 경제학자 쉘페터가 저서 『경제발전론』(1912)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창조적 파괴를 경영자가 기술 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혁신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혁신은 새로운 발명뿐만 아니라, 새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값싼 원료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생산 방법을 찾아내는 일 모두를 포괄한다.

이윤은 혁신적인 경영자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한 경영자의 창조적 파괴를 다른 기업가들이 모방하여 보편화시키면 이윤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적 경영자가 나타나 다시 창조적 파괴를 하게 되면서 이윤이 새롭게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로 인해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혁신이며 기업가 정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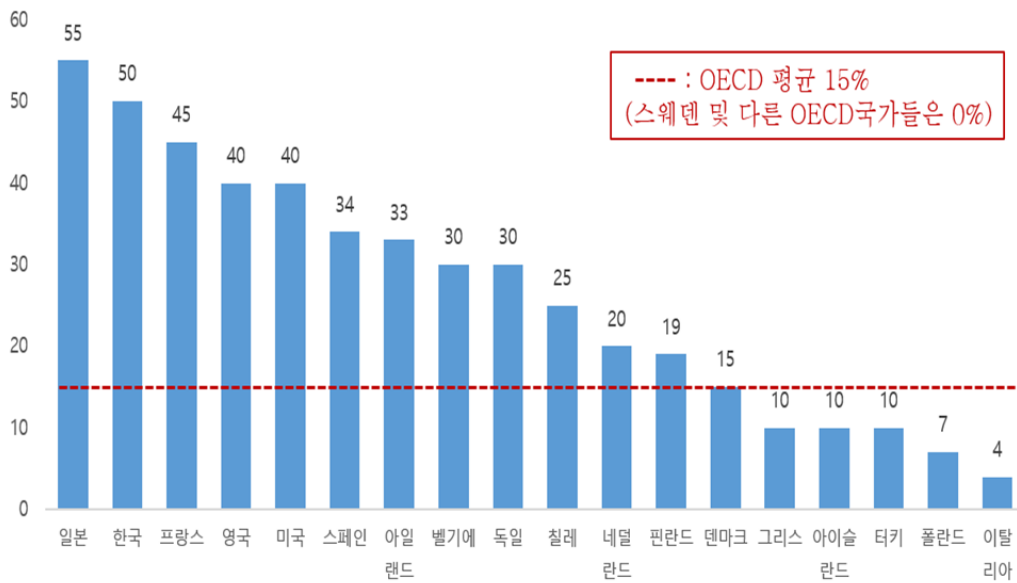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점점 강조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혁신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품과 서비스의 변혁을 시도한다. 이러한 변혁은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셋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경영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사]

스웨덴의 최고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던 1984년, 제약회사 아스트라(Astra) 설립자의 재산을 상속받았던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녀의 재산은 대부분 아스트라의 주식이었고, 이를 상속받은 자녀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 시장에 주식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자 주가는 폭락했다. 설립자의 자녀들은 물려받은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도 상속세를 다 내지 못했으며, 재산을 대부분 잃고 스웨덴을 떠났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 제네카(Zeneca)에 팔렸으며, 합병을 통해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스웨덴 기업가와 회사들이 해외로 떠났다. 스웨덴의 유명 가구회사인 이케아(IKEA), 우유 팩 발명 및 제조회사인 테트라팩(Tetra Pak) 등이 아스트라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네덜란드와 스위스로 본사를 이전했고, 스웨덴의 부호들 역시 노르웨이 등 상속세 비과세국으로 이민 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높은 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웨덴 중산층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망자(피상속인)의 보유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데,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 경우 상속세의 절대적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의 삶에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참고: OECD국가 직계비속 상속세 최고세율>



(단위: %, 2020년 기준)

(*)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비자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책임 활동을 말한다. 즉, 기업의 지속적 존속을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외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기업 이미지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시장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 글자를 딴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환경(E) 분야에서는 친환경 원료나 제품 사용, 친환경 사업장 구축,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을 강조한다. 사회(S) 분야는 이해관계자들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성과를 높이고 업종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에서는 직원과의 소통 및 종업원과 경영자의 화합을 중시한다.

■ 예시 답안

(마)의 지문은 공동체주의를 전제로 우연히 물려받은 능력이나 개인의 성과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에 따른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의 기업이 정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은 제시문 (마)의 공동체주의적 분배론에 의해 억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정신에서 발휘될 혁신적 활동이나 위험을 무릅쓴 변혁의 시도가 저해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고용 및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선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 분위기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덜어내는 것이 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공동체의 이익 또는 분배의 정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세 부가가 경영자의 이윤 추구 유인을 잃게 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등 타국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제시문 (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분배의 정의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하고 생존에 제약이 생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예컨대, 환경 분야에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무조건 강제할 것이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여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문제 2)		배점
※ 문제 2는 경영대학, 경제학부 및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 ■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 문항 평가 기준 1. 학생들이 (마)에 제시된 정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바) 및 (사)에서 도출되는 (마)의 정의관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각 30%를, 이러한 대립하는 정의의 관점을 보완책으로써 (아)에서 제시된 소설의 주제를 논하는 부분에 30%를,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2.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

구분		평가 기준	
제시문 (마)로 제시문 (바)를 분석	문제점	- 공동체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창조와 변혁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	15%
	해결방안	- 기업이 정신을 발휘한 혁신적 파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개인의 선(경영자의 이윤추구)과 공동체의 선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 견지	15%

구분		평가 기준	
		※ 구체적 사례(과도하게 경쟁을 저해시키는 정부규제 완화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제시문 (마)로 제시문 (사)를 분석	문제점	- 빈부격차 완화라는 공동선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저해한 결과 지적 -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경영자의 의욕을 잃게 하고 기업 가치를 상실시키며 나아가 부의 해외 유출 혹은 기업해체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적시 - 상속세율의 국제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의 과도한 조세 부담 인지	15%
	해결방안	- 타국과 비교해 상속세가 개인의 의욕과 기업 활동을 저해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아야 함 - 상속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 ※ 구체적 사례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 인하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15%
앞서 분석을 제시문 (아)에 적용	사례의 적용	-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파악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추구 활동과 생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 ※ 구체적 사례 (배출권 거래제 활용해 이산화탄소 감축 기업에 대한 재정적 보상,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 등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 및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기회 제공,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여부를 시장에서 쉽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 등) 제시 시 가산점 부여	30%
글 전체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